

2015년 5월 12일 날씨 (맑음,흐림,비)

눈을 뜨니 창문에 빗방울이 송송 맺혀 있었다.

그렇지! 지난밤에 태풍이 온다고 바람이 세게 불었지. 아직 어둠이 들 가시어 앞은 확 트이진 않았지만 습관처럼 차가에 서서 아래로 내려다 봤다. 도로에는 사람들은 안 보이고 자동차만 간혹 지나간다. 한참 만에 사람이 보이는데 우산을 쓰지는 않았다.

12층 아파트에 살다보니 날이 곳을 때는 아래로 먼저 내려다보면서 우산을 쓴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을 한다. 웃날은 그친 모양이다.

여느 때처럼 주방에 들어가 아침 찬거리를 대충 꺼내놓고 다시 방으로 와 머리맡에 있는 책을 폈다. 아는 분이 보내준 책을 소리 내어 읽으면서 문장이 좋은 부분은 연필로 줄을 긋기도 했다. 그래도 시간이 남아 신문을 폈다. 신문은 우선 큰 글자만 슬쩍슬쩍 보는데 오늘은 평소 보지 못했던 기사가 눈에 띈다. ‘오늘 쓴 일기 보내 주세요.’ 모든 기사가 지난밤에 들었거나 아니며 현재 진행중인 사건의 내용들이라 그렇게 새롭지 않은데 일기를 보내달라는 것은 독특해 끝까지 읽었다. 읽고 나니 2015년 5월 12일이 무슨 날이 될 것만 같이 기분이 묘했다.

나는 일기를 쓰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만이 드나드는 가게부나 블로그에 재미있는 일이 있거나 놓치고 싶지 않은 풍경 같은 게 있으며 기록하는 버릇이 있다. 그래서 인지 자꾸 컴퓨터부터 열고 싶었다. 그래도 하루를 여는 아침인데 식사부터 챙겨야 했기에 주방에서 야채를 씻고 반찬을 만드는데 마음은 온통 신문기사에 채워져 있었다. 식구들이 나가고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열어 내게 온 새로운 소식이 없나 살펴본 다음 컴퓨터에 앉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딸이 왔다. 딸은 아기가 열이나 병원에 가는 길인데 잠깐 들렀다는 거다. 그러면서 쇼핑백을 내밀었다. 쇼핑백에는 지난 어버이날 남편 선물로 사온 난방이었다. 난방이 작아 몸에 끼인다고 했더니 다시 바꾸어 온 것이다.

선걸음에 가려는 딸한테 냉장고 있는 수박을 꺼내주며 가져가라고 했다. 딸은 “엄마, 아빠 드세요.” 하면서 사양을 했다. 나는 가져가라고 하고 딸은 안 가져간다고 하고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은 내가 이겼다. 좀 무겁긴 해도 들고 가는 뒷모습을 보니 미소가 지어졌다.

수박은 이틀 전에 산 것이다. 아들이 온다기에 사 두었는데 아들은 그날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나와 지 아빠를 태우고 소문난 음식 집엘 갔었다. 그러다가 수박 먹을 시간을 놓쳐 버렸다. 차에 얹어 가라고 해도 후딱 가 버리는 바람에 수박은 그대로 있었다. 수박을 잘 먹는 며느리 생각에 얼른 수박을 쪼갤 수가 없었다.

딸을 주게 될 줄은 전혀 생각 못했는데 예상 밖의 일이다. 수박은 딸 차에서 흔들흔들 잘 갔을 게다. 누가 먹어도 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이들이라 돈 만 원짜리 한 장으로 재미를 본 셈이다.

창밖에 바람소리는 여전하다. 태풍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나 보다. 날이 흐려지는걸 보니 비도 더 올 모양이다. 좀처럼 낮에는 집에 있을 시간이 없는데 오늘은 집을 지키면서 급하게 온 딸도 맞이하러 수박 뒷얘기도 만들었다.

이제 내일 있을 일을 준비 해야겠다. 초등학교 3학년과 만나야하니 usb에 담겨있는 자료를 점검해야지. 창밖으로 보이는 사람과 자동차 사이사이 연초록 나무들 모두가 나를 에워싼 하루의 이웃이라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다.